



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

2018
No.76

발행처 |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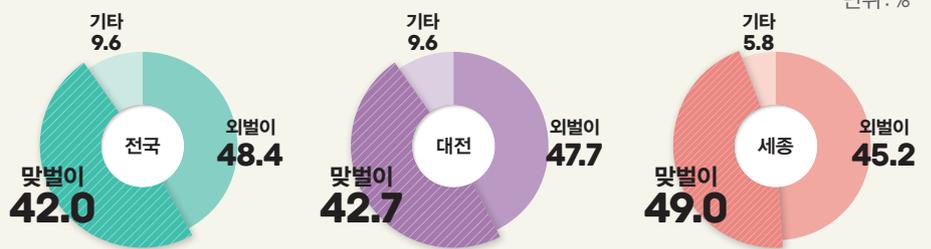
발행인 | 박재목 편집인 | 주혜진 디자인 |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| 2018. 4. 30

주택소유 신혼부부 비율 대전 57.2%, 세종 56.1%

내 집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는 얼마나 될까?

통계청이 발표하는 신혼부부통계에 의하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총 143만7천쌍(초혼 80.1%, 재혼 19.8%)으로, 이 중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42.0%이며,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4.1%이다. 대전은 42,449쌍(초혼 82.1%, 재혼 17.9%)의 신혼부부가 살고 있으며, 이 중에서 맞벌이 부부는 42.7%이며,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.8%이다. 세종의 신혼부부는 9,898쌍(초혼 85.0%, 재혼 15.0%)으로 맞벌이 부부 비율은 49.0%이며,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3.9%로 나타났다. 대전과 세종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.83명으로 전국(0.80명)보다 다소 높았다.

전국 및 대전·세종 맞벌이 여부별 신혼부부 비율(2016년 기준)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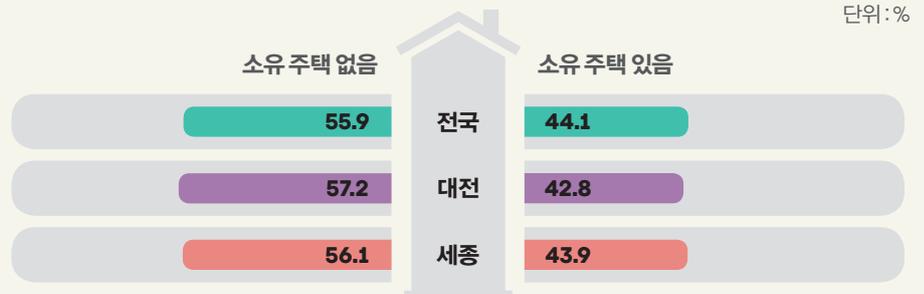
*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로 분류하였고, 남편 또는 아내 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에는 외벌이로 분류, 남편과 아내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(무직, 가사, 미상 등)로 분류

초혼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 수(2016년 기준)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전국 및 대전·세종 주택소유별 신혼부부 비율(2016년 기준)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*신혼부부통계는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에 최초 작성한 통계로서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며,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에 공표됨.

*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,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해 작성됨.

*작성대상은 기준일 현재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('11.11.1.~ '16.10.31.까지 혼인신고)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됨.

*통계표의 주 작성단위는 신혼부부수(쌍)임.

*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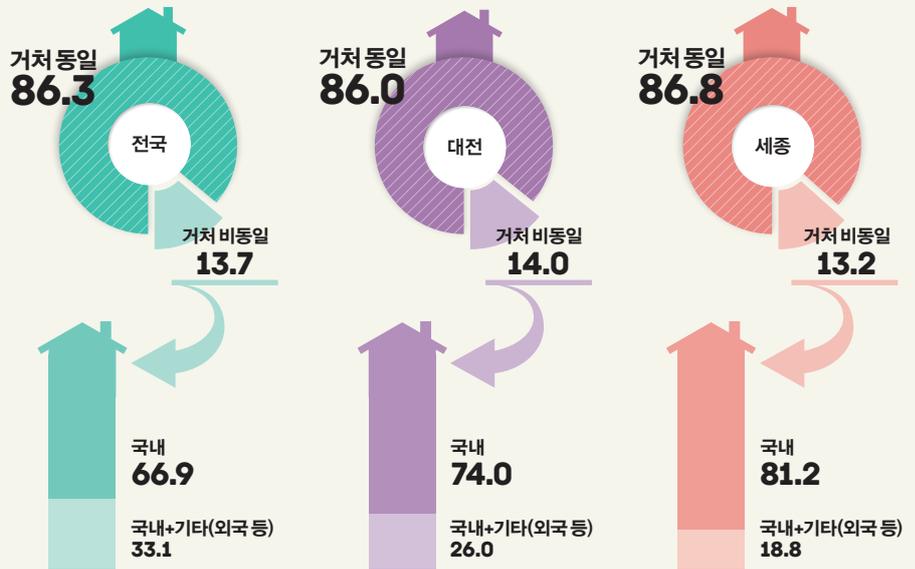
*출처_ 통계청(2016),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보도자료(2017.12.27),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

따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대전 14.0%, 세종 13.2%

2016년 11월 1일 기준 동일한 거처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6.3%(1,240,693쌍)이며, 따로 사는 부부는 13.7%(196,255쌍)이다. 비동거 신혼부부 중 두 명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는 66.9%, 부부 중 한 명은 국내에 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외국에 있거나 미상인 경우 등은 33.1%로 나타났다. 대전과 세종 지역별로 살펴보면, 대전은 86.0%의 신혼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, 14.0%(국내 74.0%, 국내+기타 26.0%)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. 세종의 신혼부부 중 86.8%는 동일한 거처에 거주하고 있으나, 13.2%(국내 81.2%, 국내+기타 18.8%)는 부부가 각자 거처를 달리해 생활하고 있다.

전국 및 대전·세종 동일거처 거주 여부별 신혼부부 비율(2016년 기준)

단위: %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*거처 비동일에서 국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부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, 국내+기타(외국 등)는 부부 중 한 명은 국내에 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외국에 있거나 미상인 경우 등을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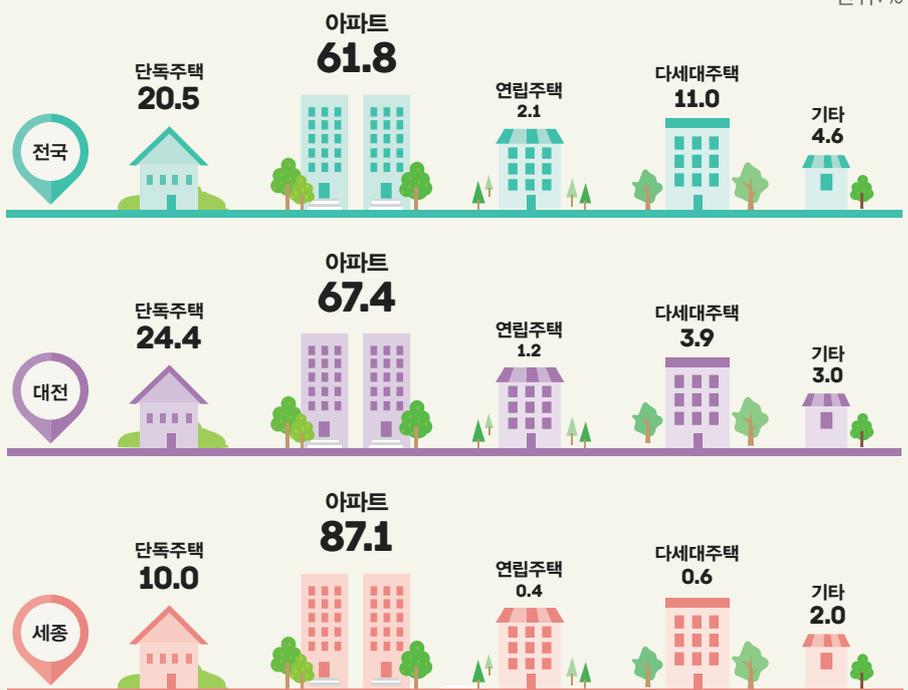
*시도항목에서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지역별 가중치(0.5)를 적용

신혼부부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, 대전 67.4%, 세종 87.1%

신혼부부가 어떤 집에 사는지 살펴본 결과,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유형은 아파트(61.8%)로 나타났다. 이어서 단독주택(20.5%), 다세대주택(11.0%), 기타(4.6%), 연립주택(2.1%) 순이었다. 대전의 거처종류별 신혼부부 비율을 보면,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비중이 67.4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24.4%, 다세대주택 3.9%, 기타 3.0%, 연립주택 1.2% 순으로 나타났다. 세종의 경우, 아파트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87.1%로 전국과 대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이어서 단독주택(10.0%), 기타(2.0%), 다세대주택(0.6%) 순으로 높았으며, 연립주택은 0.4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.

전국 및 대전·세종 거처종류별 신혼부부 비율(2016년 기준)

단위: %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*기타는 오피스텔, 숙박업소 등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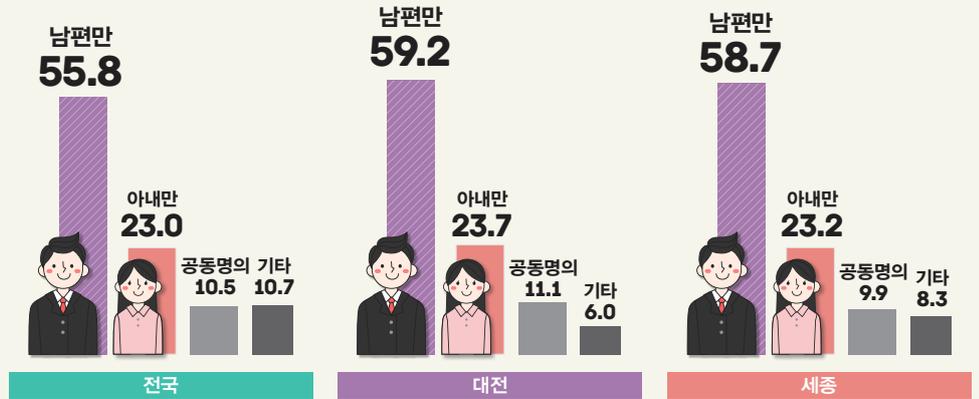
*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각각의 거처유형에 가중치(0.5)를 적용

신혼부부가 소유한 주택 중 남편 명의가 절반 이상

신혼부부가 16년 소유하고 있는 주택 82만 7천 호 중에서 단독소유 비중은 78.8%(남편만 55.8%, 아내만 23.0%)에 달하며,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0.5%, 기타 10.7%로 나타났다. 대전과 세종의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남편 명의로 된 경우가 대전 59.2%, 세종 58.7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이어서 아내 명의 대전 23.7%, 세종 23.2%로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인 주택 비율이 전국보다 높았다.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대전 11.1%, 세종 9.9%로 대전은 전국보다 0.6%p 높은 반면, 세종은 0.6%p 낮았다.

전국 및 대전·세종 신혼부부 소유주택 명의별 주택 비율(2016년 기준)

단위:%



*2017년 12월 27일 발표

*기타는 신혼부부와 다른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를 말함

*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물건 수별로 합산하여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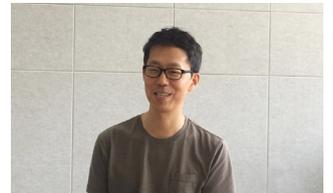
(남편이 단독으로 주택 1호 소유, 아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로 0.5지분의 주택을 가진 경우 2건으로 계산)

#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#콜로키움
#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
#미리보기

제1회 젠더 콜로키움

사례로 보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젠더연구

여성·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젠더 콜로키움이 지난 4월 26일 2018년 첫 번째 문을 열었다. 이번 콜로키움에는 '사례로 보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젠더연구'라는 주제로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. 강 교수는 미국 종합사회조사와 사망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생애과정과 사망률의 남녀 관계 차이, 온라인 커뮤니티 '메갈리아'의 게시물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내 정체성 분화 등 두 가지 사례에 주목했다. 참여자들은 '온라인·행정·서베이 데이터의 수집·결합을 통해 다양한 자료 생성과 보급이 가능해진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을 비롯해 '인터넷 공간에서 부분익명과 완전익명으로 나뉘며 나타나는 익명성에 따른 분화 양상'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.



발제자_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



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

여성가족 분야별 원탁토론 열린다

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이 5월 2일 '민선 7기에 꼭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'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일시 | 2018년 5월 2일(수) 10시

장소 | 대전NGO센터 대교육장

일정

분류	시간	내용
개회	10:00~10:05	• 개회사 주제진(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·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)
1부	10:05~10:55	• 성 주류화, 일, 돌봄, 복지, 청년, 인권, 안전, 여성대표성, 공동체 등 분야별 원탁토론(Round Table Conference)
중간휴식	10:55~11:10	중간 휴식 및 토론 내용 정리
2부	11:10~11:50	각 분야별로 제안된 의제 발표 및 공유
폐회	11:50~12:00	종합 정리 및 오찬 안내

*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